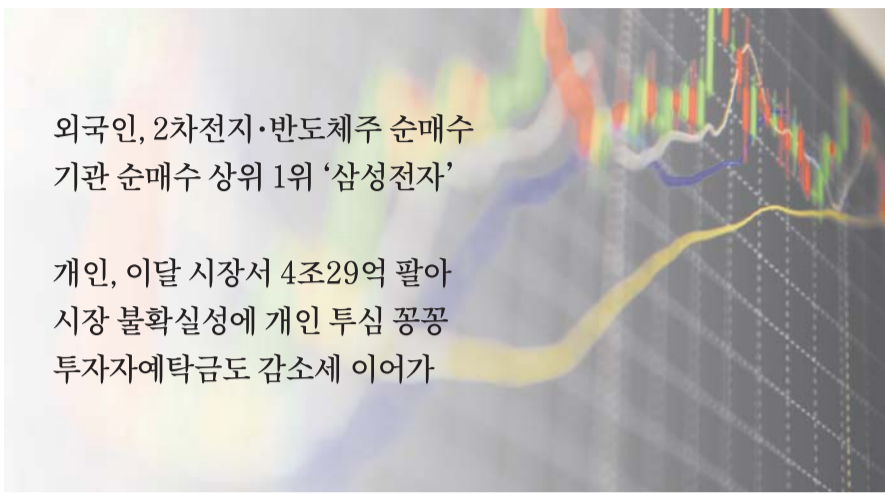


반등장에도 손 터는 개미... 외인·기관은 대형주 중심 '줍줍'

주식 시장의 반등을 계기로 개인들이 외국인 및 기관들과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차이나 런(탈중국), 원·달러 환율 하락 등 주식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계기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개인들은 연일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최근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로 국내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해 단기에는 개인들의 투자심리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3조5000억원 넘게 사들인 데 이어 이달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6373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들은 국내 대형주를 중심으로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일부터 11일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은



살펴보면 2차전지, 반도체 관련주다. 외국인 순매수 1위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453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어 삼성전자(3958억원), 삼성SDI(3283억원), SK하이닉스(2116억원), LG화학(1541억원) 순이다. 이달 들어 기관도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2553억원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은 삼성전자(4174억원)로 반도체주를 지속해서 순매수했다. 기관은 SK하이닉스도 586억원 어치 사들였다.

반면에 개인들은 이달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29억원을 팔아치웠다. 개인들

은 외인과 기관이 매수한 삼성전자(8289억원)와 LG에너지솔루션(3776억원), SK하이닉스(2719억원), 삼성SDI(2639억원) 등을 위주로 매도세를 보였다. 주식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투자자예탁금은 46조9386억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최근 반등장에서 개인들이 차익실현을 위해 매도세를 보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반등할 때는 위험 자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손해를 보고 있던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급반등으로 인해 그 손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차익실현을 위해 파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거나 이미 예상된 부분이고 컨센서스 상·하회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주 반응을 낙관하기만은 힘들다"며 "주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서도 정책 피벗(정책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앞으로 외국인도 차익실현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선물 매매는 중립 수준에서 매수·매도만 반복하고 있다"며 "경기와 실적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차익 실현 심리가 언제든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CIS 라인업 준비... 완전자율주행시대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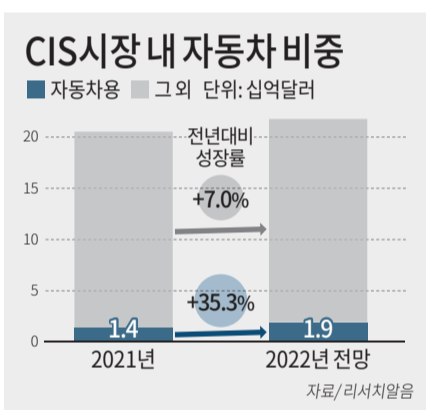
株라쿨라의 종목 픽셀플러스

올 상반기 매출액 84%, 자동차 부문 내년 ISO26262 국제표준인증 확보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이동현 연구원은 '픽셀플러스'에 대해 "완전자율주행을 위해 차량에 탑재되는 카메라 수증가로 차량용 CIS(CMOS 이미지 센서) 수요 확대에 이어진다"라며 "향후 CIS라인업을 준비해둔 상태로 수혜가 기대된다"고 14일 밝혔다.

픽셀플러스는 지난 2000년 설립된 CIS 및 IC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다. 2012년부터 자동차용 CIS 연구개발에 집중하면서 주력 매출처를 자동차 산업으로 전환했다. 올 상반기 기준 매출액 84%가 자동차 부문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하는 영향으로 CIS시장이 급성장해 픽셀플러스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자동차용 CIS시장은 전년 대비



35.3%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연구원은 "자율주행에는 최소 12개의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탑재량 증가가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현재 차량용 CIS의 경우 VGA급으로 낮은 화소수의 사양을 활용하는데, 향후 자율주행 카메라에 고화수 CIS가 요구될 경우, 제품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픽셀플러스는 HD, FHD급 CIS 라인업을 이미 준비 완료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8월 일본 완성차 업체로부터 45억원 가량의 제품 공급 계약에 성공하면서 BM(Before Market) 시장

진입에 성공한 바 있다. 이 연구원은 "현재 BM 고객사 일본 완성차 업체 2곳으로 파악되며, 올 상반기 기준 BM 매출 비중은 44%"라며 "PIO(선적전 장착) 시장 레퍼런스를 확보해 BM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년 중 ISO26262 국제표준 인증을 확보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 공략을 시작할 계획이며, 인증 완료 이후 일본 외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진입 성공 시 급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미·중 반도체 전쟁이 심화될 경우 픽셀플러스의 반사수혜도 기대된다. 현재 차량용 CIS 시장은 미국은 세미(On Semi)사와 중국 옴니비전(Omnivision)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아직 자동차용 CIS 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완성차 업체들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 반도체 수급에 대해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리서치알음은 픽셀플러스에 대해 '긍정적' 주가 전망과 적정주가 1만3500원을 제시했다. /이영석 기자 ysl@

정부 대출 완화에도 부동산시장 '냉랭'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최대 하락폭

최근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지만 시장의 관망세는 여전하다. 고금리 기조로 매수세 위축이 이어지면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3년 8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떨어졌다. 이는 2019년 3월(15일 기준, -0.08%)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같은 기간 재건축은 0.04% 내렸고, 일반 아파트의 경우 0.09% 하락했다.

서울 25개구 중 보합(0.00%)을 기록한 3곳(금천, 종로, 중랑)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하락했다. 지역별로 ▲강동(-0.26%) ▲구로(-0.23%) ▲관악(-0.20%) ▲중구(-0.19%) ▲도봉(-0.13%) ▲용산(-0.10%) ▲은평(-0.10%) 등이 떨어졌다.

10%) 등이 떨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선사현대'는 이달 전용면적 59㎡가 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9월 거래가격(7억9000만원) 대비 2억1000만원 하락했다.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구로두산'의 경우 지난달 전용면적 44㎡가 4억4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지난 1월 최고가였던 6억1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하락했다.

매수심리를 크게 좌우하는 고금리와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한 거래 정상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2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해지면서 대출이자 부담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김대환 기자 kdh@

SK에코플랜트-남부발전 그린수소·암모니아사업 협약

생산 사업모델 공동 개발

SK에코플랜트가 한국남부발전과 손잡고 국내의 그린수소 및 그린 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에 나선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1일 서울 중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남부발전과 '그린수소·암모니아 및 저탄소 에너지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그린 에너지 분야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그린수소 및 그린 암모니아 생산 사업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협력 및 실증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사는 혼소발전용으로 소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린수소·암모니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생산 인프라 구축 및 국내 도입을 위한 사업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협력하는 방침이다.

SK에코플랜트는 신재생에너지연계 그린수소·암모니아 솔루션을, 남부발전은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생산 공정 및 운송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오른쪽)과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

양사는 연료전지에 탄소 포집·활용 기술 및 액화 기술을 접목시켜 전력생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70% 이상 저감할 수 있는 저탄소 에너지 솔루션 모델을 구축하고 실증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김대환 기자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삼전·LG엔솔 최다

KB증권, 소수점 매매 5만명 이용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을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KB증권은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이용고객이 11월 현재 5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7개 증권사 중 10월 말 기준 서비스가 입자 수로 보면 KB증권이 7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누적 매수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시장점유율 53.5%다.

KB증권은 "불안정한 시장환경 속에서 국내상장주식에 부담없이 천원부터 투자를 할 수 있는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의 장점이 부각된 결과"라면서 "일단위·주단위·월단위 적립식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량주를 편리하게 소액

으로 꾸준히 사 모으려는 투자자의 니즈를 충족한 것이 또한 가장 큰 인기 비결"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신청자 중 적립식 구매에 특화된 '소수점 정기 구매' 서비스 신청계좌 수는 1만5111좌로 전체 신청계좌 수의 28.5%를 차지했다. 전체 거래대금(12억1000만원)의 11.6%인 약 1억4000만원이 '소수점 정기 구매' 서비스로 체결됐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고객이 전체 신청 고객의 45%를 차지했다.

투자자들이 소수점매매 서비스를 통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이었고, 두 종목이 매수 금액의 55.1%를 차지했다.

KB증권은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와 2차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표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백미경 기자 mikyung96@